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3.3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협상 기대 vs. 확전 우려, 혼란 속 미국 증시 혼조

- 미국 증시 주요 지수 혼조 마감: 다우 +0.11%, 나스닥 -0.73%
- WTI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 돌파..알루미늄 가격 3% 이상 상승
- 파월 "공급 충격 따른 기대 인플레 변화 관망"..연내 금리 인상 전망 꺾여

Summary

미국 증시 혼조 마감

3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종전 협상 기대감과 확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가운데 혼란 속에 등락 끝 혼조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11% 소폭 상승한 45,216.14에 마감. 하지만 S&P500지수는 0.39% 하락한 6,343.72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0.73% 하락한 20,794.64에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보다 위축된 움직임으로 1.46% 하락한 2,414.01에 마감함.

종전 기대-확전 우려

종전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낙폭 과대 인식 속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출발했던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전쟁과 관련한 엇갈린 소식들 속에 등락 끝 혼조 마감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한편 확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해. 백악관은 이 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잘 진행 중이라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새로운 정권과 종전 협의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힘. 다만 이렇듯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든 협정이 곧 체결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와 유전, 하르그섬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 또한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 여기에 종전 협상 결렬에 대비한 미군 지상군도 중동에 도착. CBS는 해군과 육군 특수부대 수백명이 중동에 배치됐으며 이들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와 하르그섬 상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주말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번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한 것도 시장 내 확전에 대한 우려로 작용. 다만 이 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후티 반군의 참전과 관련해 그들의 공격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며 홍해는 지금의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전쟁의 다자화, 격화, 그 과정에서의 홍해 항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다소 가라앉혀.

WTI 종가 기준 배럴당 100달러 돌파

장 중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에너지 시설과 하르그섬 파괴 위협에 리스크 오프 심리가 자극되며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함. WTI는 배럴당 102달러를 넘겨 마감. WTI가 종가 기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처음.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대에 안착해, 3월 한 달간 약 55% 가량 급등 중.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정유/에너지주는 최근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시장 분위기와 차별화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임. 지난 주말 이란

이 중동 지역 알루미늄 생산 시설 두 곳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은 장 중 5% 이상 급등. 이 소식은 알코아 등 알루미늄 관련 기업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됨. 전일 한국 증시에서도 알루미늄 관련주 강세가 두드러졌음.

자본 지출 축소 우려 부상, 기술주 약세

이 날은 특히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약세 폭이 컸음. 거시 경제 압력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물 경기 위축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도 쪼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가 관련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 웨드부시 증권의 기술 리서치 총괄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주가에 악재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실적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지만 주가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 그는 "만약 현재의 역풍이 여름까지 이어진다면 그 때는 실제 숫자와 설비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혼란이 오래 가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장애물로 봐야 한다"고 강조.

파월 "현재 금리 좋은 위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연준은 이를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파월 의장은 이 날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대 초청 강의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며 지켜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며 "유가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 그는 또 공급 충격이 반복되면 기업과 가격 결정자, 가계가 더 높은 인플레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 다만 최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유가 급등에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 이 발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혀 이 날 국채 금리 하락에 힘을 실음. 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 부실 위험 경고가 나오는 사모대출 시장과 관련해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 고리와 전염될 수 있는 경로, 시스템 위기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한편 이 날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내 1%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다우 +0.11%, 나스닥 -0.73%, S&P500 -0.39%, 러셀2000 -1.46%)

특징종목

금융,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강세..산업, 기술주 약세

업종별로는 산업재 섹터가 1.61%, 기술은 1.49% 하락. 반면 금융업종은 1.1% 상승했으며 의료기기를 제외한 헬스케어 섹터,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섹터도 상대 강세.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엔비디아(-1.40%)와 애플(-0.87%), 테슬라(-1.81%) 등이 하락세를 이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0.61%), 아마존닷컴(+0.81%), 메타 플랫폼스(+2.03%)등은 반등.

AI·반도체↓ -소프트웨어↑

메모리와 스토리지, 광학업체까지 반도체 섹터 전반이 약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3% 하락했으며 지수 구성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9.88%)의 낙폭이 특히 컸음. 최근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한 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 교란이 발생해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하는 점,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위축은 결국 기업들의 자본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관련주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4.64%), 웨스턴 디지털(-8.60%), AMD(-2.95%), 램 리서치(-5.43%), 샌디스크(-7.04%),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4.17%) 등이 크게 하락. 코히어런트(-9.79%), 루멘텀 홀딩스(-6.82%) 등도 낙폭이 컸음.
다만 AI의 기능 고도화가 수요를 떨어뜨려 산업 구도를 변화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관련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반등. 서비스나우(+5.59%)는 핵심 파트너사와 38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실제 대형 고객과의 계약이 지속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상승. 세일스포스(+3.19%), 인튜이트(+3.02%) 등도 강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특히 사이버 보안주의 경우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지출이 배 이상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이 같은 실제 산업 변화와 괴리가 크다고 지적. 팔로 앨토 네트웍스(+4.99%), 지스케일러(+3.08%), 포티넷(+1.09%) 등 보안 관련주 강세.

알루미늄 관련주 강세

전일 한국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장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알루미늄 관련주가 강세. 이란이 주말 중동 지역 알루미늄 생산 시설 두 곳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4% 가까이 상승해 4년만의 최고점에 근접. 알코아(+8.23%), 센추리 알루미늄(+7.25%) 등이 상승.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하락

고유가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고공 행진하던 국채 금리가 이 날은 하락. 고유가로 물가 수준이 높아질 경우 결국 소비 심리가 위축돼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가 이 날 금리 하락의 주 요인.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도 장기 기대 인플레가 안정적인 만큼 전쟁의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하며 현재 통화정책은 지켜보기에 적절한 위치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날 발언도 금리 인상 전망을 꺾어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8.4% 하락해 3.82%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장기 성장 전망을 반영하는 10년물 금리도 8bp 하락해 4.34% 수준을 기록. 30년물 금리도 5.3bp 하락해 4.91%로 5%선에서 멀어짐.

달러인덱스 지난해 5월 이후 최고

달러화는 인덱스 기준 100선을 넘어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란 전쟁이 명확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리스크 오프 심리를 자극해 안전자산 달러의 강세를 견인.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0.34% 상승한 100.49를 기록.

WTI, 종가 기준 100달러 상회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위협 등을 재료로 상승세를 지속함. WTI는 3.25% 상승해 배럴당 102.88달러에 마감,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0달러를 상회. 브렌트유는 1.62% 상승한 112.78달러로 110달러에 안착하는 모습. 국채 금리 하락과 맞물려 이 날은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도 상승.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